

이 체로운 민속놀이 풍경

설명절을 맞으며 공화국의 각지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소년들이 여러가지 민속놀이와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로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이체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평양의 김일성광장과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광장 등 곳곳마다 술대문과 축동 등으로 명절장식을 하고 설명절을 즐기는 수많은 학생소년들로 흥성거렸다.

단심줄놀이, 줄넘기,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 가운데서 이체를 띤 것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연퍼우기놀이였다.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담은 연들을 서로마다 승배내

기로 높이 날리며 즐거움에 휩싸여있는 아이들, 하늘높이 날아올라 춤추는 꼬리긴 연들과 함께 학교별, 학급별로 누구의 연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겨루는 만만치 않은 모습도 보였다.

오가던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떠있는 각양각색의 연들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행복동이》, 《강성조선》, 《조국통일》...

맑고 푸른 하늘을 날아오는 연들의 모양과 색깔은 서로 달라도 거기에 실린 행복동이들의 희망과 꿈은 하나와 같이 밝고 아름다웠다.

한편 이날 개신문광장에서 도 명절웃을 곱게 입은 학생소년들이 술대문을 세워

놓고 씩씩하고 명랑한 노래에 맞추어 단심줄을 꼬며 춤을 추는 등 갖가지 민속놀이로 명절을 즐기었다.

끝없이 내려치는 희망이런 듯 하늘높이 연을 날리는 중학생들이며 제기차기에 여념이 없는 소학생들, 누가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남학생들의 무릎싸움도 볼만 하였지만 재치있게 팽이를 돌리는 녀학생의 재주는 더욱 이채로웠다.

그런가하면 한쪽에서는 《이겨라-》, 《빨리, 빨리》하는 응원소리와 함께 남학생들의 로라스케트경기가 한창이었다.

소학교 4학년쯤 돼보이는 학생이 중학생과 내기를 걸었는데 결국 《꼬마가 이겼다.》하는 환성이 터졌다.



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어른들도 얼굴에 호뭇한 미소를 띠우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이밖에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 그리고 상흥아동공원, 보통강공원을 비롯한 공원들에서도 설명절의 기쁨이 넘쳐났다.

서로 손목잡고 얼음판을 지치는 중학생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겨꿈내기로 로라스케트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자기의

《모야!》
《야-》
《한번 또 하라요.》
...
《고사리같은 손으로 좋아라 웃고 떠들어대는 아이들이며 호뭇한 표정으로 앉아 웃판에 말을 옮겨가는 녀성들. 이어 떠들썩한 웃음속에 상대편이 던진 옷가락들이 또다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다. 이번엔 또 《숨》이 나왔다. 그러자 흥이 나 어깨를 들썩이며 세동산씩 말들을 모아

전진하는데 바싹 긴장해진 다른 편에서 《작전》을 새롭게 짜가지고 맹렬한 추격을 벌인다.

...
이것은 설명절을 맞으며 하는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30인민반 주민들의 웃놀이경기 장면이다.

이곳 인민반의 리정숙인민반장은 설명절을 맞으며 충별로 한림이 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해온 웃놀이 경기가 오를 최종순위를 다루고 있다

고 말해주었다.

최종순위를 다투는 경기는 6층과 2층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결승경기여서 그런지 선수들보다도 웃놀이판을 둘러싼 응원자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옷가락이 굴러나서 없어질 듯 하다가 찢혀지고 찢혀질 듯 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눈길들, 《도》나 《후도》가 나올 때의 아쉬움과 《숨》, 《모》가 나왔을 때의 기쁨의 탄성이 엇갈려 웃놀이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어갔다.

예로부터 웃놀이는 놀이 방법이 다양하고 몇사람이 건 짝만 맞으면 어디서든 놀수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가 설명절때마다 즐겨해온 민속놀이이다.

가족, 친척끼리 혹은 온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떠들썩한 응원속에 옷가락

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기도 하며 승부를 다투어 왔다.

《웃진 예비자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머리 허연 사람이 젊은이나 어린애한테 지고는 한번만 더 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것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광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것이 웃놀이인것이다.

하기에 승부를 다투는 웃놀이경기를 흥미있게 지켜보던 이곳 인민반의 정지룡로인은 웃놀이야말로 할수록 더하고싶고 승부를 떠나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니 정말 좋은 민속놀이라고, 오늘 경기에서 어느 총이 이겨도 좋다고, 다 우리 인민반이 아닌가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떠들썩한 웃음과 랑만속에 진행된 이날의 웃놀이 결승경기는 6층이 이긴것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박원평



즐거운 설명절날은 나라의 집집마다에 기쁨과 웃음이 한껏 넘쳐났다.

설명절을 맞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홍수선생의 집으로 제자들이 찾아왔다.

나라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스승에게 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이로부터 설날에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 스승을 찾아가 새해에 행복하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하여 따뜻한 인사말을 나누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레의범절이다.

나이와 생활에 맞는 좋은 말을 골라 인사를 나누고나면 마음이 저절로 후더워지며 서로의 친근감이 더욱 두터워지는것이다.

하기에 꽃다발을 받는 스승의 눈가에는 웃사람을 존경하고 레의를 귀중히 여기는 교상한 미풍을 지닌 훌륭한 제자들을 둔 교육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났다.

설명절을 비롯하여 뜻깊은 명절들과 스승의 생일날이 오면 약속이나 한듯이 꼭꼭 찾아와 인사도 드리고 축하의 꽃다발도 안겨주며 선생님의 기대와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학과학습을 더 잘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지곤 하는 미더운 제자들이

를 찾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영예군인인 그와 안해 리영옥녀성에게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겨주고 손공금과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도 불러주었다.

친척들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군인부부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록한 처녀의 소행이 전해진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가.

매해 명절때는 물론 때없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고 영예군인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의 목소리가 마음을 후덥게 해주곤 했다.

창문밖에는 한겨울의 추위가 감돌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의 집집마다에서는 이렇듯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봄날처럼 활짝 피어나고있었다.

본사기자

가정에서의 《설음식품평회》

여느때없이 푸근한 설날 아침 우리는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1동을 찾았다.

유포한 웃음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들이선 곳은 어느 한 인민반의 7층 5호집이었다.

《마침 잘 왔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층에 사는 세대들이 모여 《설음식품평회》를 하던 중이랍니다. 어느쪽에 도 기울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 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7층 5호집 세대주 박철진이 구원자라도 만났듯이 덤벼치며 하는 말에 저도모르게 우리도 그 분위기에 끌려들었다.

알고보니 명절날이나 일요일마다 모여앉아 함께 즐기곤 하는 이들이 이번 설명절날에 가정들에서 만든 설음식을 놓고 등수를 매기기로 하였다는것이였다.

《심사원》들로서는 매

가정의 세대주들이 선출되었다.

이어 며칠전부터 가정주부들이 품들어 준비한 설명절 음식들이 차례로 《출품》되었다.

2호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설명절특식인 약파와 강정을 내놓는가 하면 3호집의 새색시는 찰떡과 수정과를, 5호집의 이흥이 어머니는 김과 닭알로 보기 좋게 고명을 한 떡국을 만들어 내놓았다.

어느 음식들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색있는 설명절음식들로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음식맛을 보며 점수를 매겨가던 세대주들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나돌았다.

어느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1등으로 평가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때문이었다.

마음같이서는 자기 안해들이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내세우고싶었지만 다른 집들에서 만든 설음식들도 맛과 향취, 색깔에서 이를테 없었던것이였다.

이런 때 찾아온 우리를 보고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들의 심정에 리해가 갔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설음식들을 차려놓고 은근히 원심을 쓰는 이들의 눈빛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애쓰는 가정주부들의 노력을 엿볼수 있었다.

이때 강정이며 약파를 랑손에 잔뜩 집어들고 방안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던 2호집의 장난꾸러기가 엄지손가락

을 내들고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이야!》라고 해서 유포한 웃음판이 펼쳐졌다.

《오늘 품평회에서는 모두 1등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공정한 《평가》가 끝나자 저마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어 자기들이 만든 음식들을 서로서로 권하며 맛나게 음식들을 즐기 시작했다.

설음식을 특색있게 만드느라 애쓰는 과정에 터득한 묘리들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는 녀인들, 그런 안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호뭇함을 감추지 못하는 남편들,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볼수록 즐거움을 자아냈다.

본사기자 고영숙

